

클래식 명곡 산책 - 13 - 사중주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You Tube를 통해
이번 호의 곡을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사중주’(Quartet)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구조일 것입니다. 합창의 기본이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의 4성부 구조이듯이, 기악에서도 이 네 악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앙상블로서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네 명의 연주자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연주에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것도 한몫했죠. 그 대표적인 장르가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가 등장하는 ‘현악사중주’입니다. 또한 한 대의 바이올린 대신 피아노가 들어간 ‘피아노 사중주’도 많이 작곡되었으며, 관악기도 포함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전자음악과 같은 새로운 음향이 더해지기도 하죠. 이제 가장 완벽한 구성, 사중주의 세계로 다이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 피아노 사중주 1번 (1785)

Wolfgang Amadeus Mozart : Piano Quartet
No. 1 in G minor, K.478

일반적으로 ‘피아노 사중주’라고 일컫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의 편성은 모차르트가 살던 때에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사중주 1번>은 오늘날 ‘피아노 사중주’의 의미에 부합하는 초기의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출처 : wikipedia.org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은 1785년에 출판업자이자 작곡가인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 곡의 피아노 사중주곡을 위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작품이 그해 말에 출판되었는데, 아마추어에게는 매우 어려워서 판매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프마이스터는 다른 두 곡의 위촉을 취소하고 말았죠. 사실 호프마이스터의 판단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88년 바이마르에서 출판된 ‘사치와 유행’이라는 잡지에는 네 연주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연주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연주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즐거운 마



현악사중주(클리어드 현악사중주단) / 출처 : meanycenter.org

음으로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평이 실렸죠. 특히 피아노 파트가 상당한 실력을 요구하는데요, 모차르트가 피아노 협주곡을 쏟아내던 시기라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1악장은 모든 악기가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주제를 연주한 후, 이 주제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진행합니다. 2악장은 운명에 순응하는 듯 차분하게 가라앉고, 3악장 피날레는 밝고 가벼운 피아노를 중심으로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1824)

Franz Schubert :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eath and the Maiden', D.810

슈베르트의 가곡 <죽음과 소녀, D.531>(1817)은 '소녀'와 '죽음'이라는 두 배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소녀는 다가오는 해골에 나를 만지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며, 죽음은 나의 품에 편히 잠들라고 유혹하죠. 합창스타일의 느린 서주 후, 쫓기는 듯한 빠른 리듬으로 외치듯 소녀 부분을 노래하고, 곧이어 죽음 부분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사를 읊습니다.

그는 1824년에 열네 번째 현악사중주곡을 작곡하면서 이 노래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작곡된 수많은 가곡을 물리치고 이 짧은 곡을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22년부터 시작된 매독 증상이 심해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심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랑과 우정 대신 고통만이 주어진 사람, 미에 대한 열정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보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게." 어두우면서도 격렬한 현악사중주 14번은 그의 진실한 심정이 담겨있는 곡임이 틀림없습니다. 본래의 가곡이 인용된 부분은 2악장으로, 서주와 죽음 부분의 앞부분이 주제로 제시되며 다섯 개의 변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주에서는 죽음의 뒷부분이 등장하여 평온하게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가곡의 내용을 바탕으로 곡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게끔 합니다. 1악장은 죽음에 대한 저항, 2악장은 죽음의 유혹, 3악장은 최후의 저항, 그리고 4악장은



프란츠 슈베르트 / 출처 : styriarte.com

죽음의 춤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상상해보세요!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1840~1893)

: 현악사중주 1번 (1871)

Pyotr Tchaikovsky : String Quartet No. 1 in D major, Op. 11

차이코프스키는 영감과 내적 욕구에 의해 작곡하는 철저한 낭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악사중주 1번>은 필요에 의해 작곡된 흔치 않은 경우였죠. 모스크바 음악원을 설립하고 차이코프스키를 교수로 초빙했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자금을 모으기 위한 음악회를 계획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공연을 위해 1871년 2월에 사중주곡을 급히 작곡했죠. 3월 28일에 열린 초연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곡의 네 악장 중 2악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만하지만, 인기에도 걸맞은 일화도 있죠. 1876년 1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를 위해 차이코프스키의 실내악곡과 성악곡으로 짜인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음악회의 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서 톨스토이 옆에 앉았죠. 그런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느리게, 노래하듯이)가 연주될 때 톨스토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6세의 젊은 작곡가에게 대 작가의 눈물은 그 어떤 예술보다 큰 감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차이코프스키에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 출처 : wtl.org

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재능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바로 답장을 썼죠. “나의 음악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감동은 10년이나 지난 1886년 7월 1일 일기도 등장합니다. “작곡가로서 그렇게 기쁨과 감동을 한 경우는 내 삶에 다시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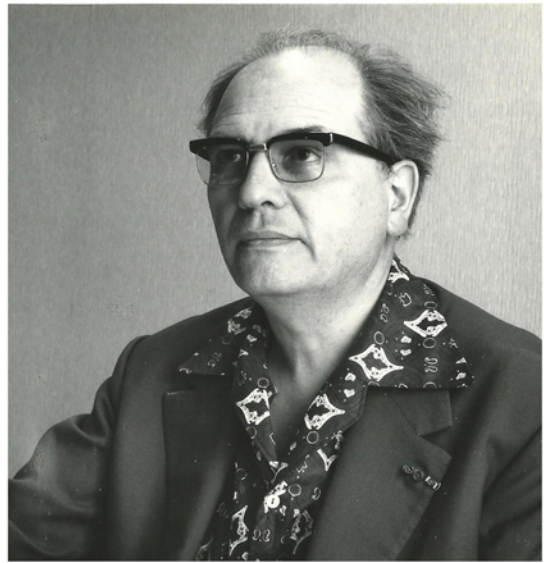
약음기를 끼우고 연주되는 2악장에는 두 개의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첫 멜로디는 우크라이나 카멘카 지역에서 사는 여동생의 집에 머물렀을 때 들었던 ‘바나는 벤치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이며, 두 번째 멜로디는 차이코프스키의 창작으로서 피치카토의 은은한 반주 위에 고독하게 진행합니다. 외부에서 들었던 소박한 노래와 내면에서 들려온 순수한 노래가 어우러져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리비에 메시앙 (1908~1992)

: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 (1940)

Olivier Messiaen : Quatuor pour la fin du temps

프랑스의 작곡가 메시앙은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의무병으로 참전했는데, 이듬해 6월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독일과 폴란드 국경 남쪽에 위치한 괴를리츠 동쪽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을 만난 메시앙은 자신을 포함하여 사중주곡을 작곡하고, 1941년 1월



올리비에 메시앙 / 출처 : porta-polonica.de

포로수용소에서 초연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포로수용소에서 작곡과 연주를 하다니! 악기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독일군은 어떤 생각으로 초연을 허락했을까요? 예술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배울 만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완성된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은 메시앙 초기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 그는 오른발로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0:1-2, 5-7)

메시아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그의 많은 곡들이 종교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목이나 세세한 부제를 통해 그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며,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죠.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의 서문에도 왼쪽페이지 아래처럼 성경의 한 구절이 적혀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음악적 요소에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중주곡의 경우 악장의 수인 '8'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성취를 상징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7'에 따라 일곱 악장으로 종말의 과정을 완성합니다. 일곱 악장은 4악장의 '간주곡'을 중심으로 1~3악장은 하늘에서의 사건, 5~7악장은 지상에서의 사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8악장은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한 종말 이후의 영원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음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소리'입니다. 메시아에게 새소리는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로 1~3악장에서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으로부터 새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라이시 (1936~)

: 다른 기차들 (1988)

Steve Reich : *Different Trains*



스티브 라이시 / 출처 : newmusicusa.org

라이시는 반복과 차이를 강조하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후 불과 1년 후에 그의 부모는 이혼하고 말았죠. 아버지는 뉴욕에, 어머니는 LA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939년부터 1942년까지의 유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기차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수차례 횡단했죠. 훗날 라이시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유럽에 있었다면 유대인으로서 매우 다른 기차를 타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기차들>은 이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라이시는 자신의 부모였던 버지니아 미첼과 그 기차의 특실 짐꾼이었던 로렌스 데이비스의 육성 증언을 녹음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라첼라, 폴, 레이첼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1930~40년대의 미국과 유럽의 기차 소리도 모았죠. 그는 이러한 녹음 자료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성 단편을 음악화한 ‘말하는 선율’과 기차 소리를 모방한 기계적인 복합 리듬을 현악 사중주가 반복적으로 연주하게 했죠. 이렇게 이 곡에는 전자음악, 미니멀리즘, 복합 리듬, 말하는 선율 등 당시 라이시를 특징짓던 라이시의 모든 것이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차들>을 구성하는 세 악장은 각각 전쟁 전의 미국과 전쟁 중의 유럽, 그리고 전쟁 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악장은 버지니아와 데이비스, 2악장은 라첼라, 폴, 레이첼의 육성이 편집되어있죠. 3악장은 레이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육성이 들어있으며, “전쟁은 끝났다”라는 폴의 말로 시작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음악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감상이 될 것입니다. 